부산 팔관회, 호국불교 전통 재현

11월 9~10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일대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계를 받아 지키며 불교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던 팔관회가 불도 부산에서 전통방식으로 재현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1월 9~10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팔관회를 개최한다. 팔관회는 551년(진흥왕 12)에 처음 행해진 호국불교 행사로, 고려시대 국가차원의 공식행사로 자리 잡았다. 팔관회는 8계를 엄격히 받아 지키며 나라의 번영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불교 전통의식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팔관회를 개최하며 전통불교 의식을 널리 알리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이어왔다. 특히 팔관회를 문헌에 따라 고증, 재현해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팔관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로 문을 연다. 호국기원법회는 문헌에 따라 '팔관회 때 국왕이 왕사를 모시고 국태민안과 순국장병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법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에 따라 재현한다. 호국기원법회에서는 사부대중이 호국기도문(인왕반야경 호국품)을 낭독하며, 법회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법회는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호국기원기도 △

9일 호국기원법회 · 백희가무

10일엔 호국영령위령재 봉행

대중 위한 팔관재수계법회도

"오랜 역사 불교역할 재조명"

팔관회 봉행 개요 △대회사 △봉행사 △축사 △축가 △내빈소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된다. 백희가무는 법회 직후 무대에서 바로 진행되며 호국관련 내용으로 마당극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는 '호국영령위령재'가 재현된다. 위령재는 부산무형문화재 9호 부산영산재보존회가 주관하며,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한 고려팔관회를 근거로 봉행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1월 9~10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팔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팔관회 행사 모습.

팔관재계수계법회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수계법회는 3화상 중심의 백고좌 법회로 경선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 세운 스님(수석부회장), 범산 스님(범어사 부주지)이 3화상으로 등단한다.

그 외 부산불교연합회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시민들과 불자들을 반긴다. 11월 1~10일 선문화교육센터 일대를 팔관회 호국기원등으로 꾸며 대중이 소원등을 달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아울러 9일과 10일 이틀간 팔관회 사진전이 열리며 전통체험 및 먹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행사는 새롭게 불사한 선문화교육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새로운 공간에서 팔관회의 중요성을 알리게 됐다"며 "전통불교문화 가운데 계를 통해 호국정신을 고취한 중요 행사를 재현한다. 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 역사 가운데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승병활동 요람, 개산 의미 되새겨

월주 스님 "국론분열 막아야"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0월 19일 금산사 개산 1420주년을 맞아 창건 이래 역대 조사의 중생구제 원력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를 계승하는 모악산 문화제를 개최했다. 처영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개산 기념법회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동영 · 김광수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구촌은 한 가족, 한 일터가 된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내편과 네 편으로 파당 짓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서고, 진영논리로 국론을 분열하는 불행한 역사적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금산사 개산 1420주년을 맞아 인종 · 지역 · 이념을 초월해 세계를 화합시키고 공존케 하는 원융무애한 대자대비의 보살행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조계종립 금산중고 씨름부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기념법회 후에는 모악산 숲속음악회가 열렸으며, 진표율사와 금산사를 배경으로 한 창작뮤지컬 '백제미륵의 꿈, 진표율사'가 처음 공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이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 제공"

나주세지中, 새 급식소 개관



불교종립학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마을음악회가 열렸다.

불교종립 벽상학원 나주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는 10월 18일 새로운 급식소 개관을 기념한 '느티나무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남의 작은 소도시에서 불교종립학교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세지중학교의 새로운 급식소인 '미소관'의 개관식을 겸한 마을 주민 잔치였다.

행사에는 이사장 원일 스님을 비롯해 면장, 우체국장, 이장단협의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등 세지면 주민 250여 명이 동참했다.

원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마을주민들과 동문회, 학교 행정실, 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으로 미소관이 개관했다. 우리 마을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식사를 한 이슬비(3학년) 학생은 "새 급식소를 오래 기다렸다. 예전에는 시설이 비좁아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야 넓고 멋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다. 곧 졸업이라서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음악회에는 학생 4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첫 무대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세지중학교는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학생들은 매주 2회 2시간씩 다양한 악기를 배운다. 이어 개관식과 교사들로 이루어진 앙상블 연주, 졸업생 이병섭 씨의 통기타 연주, 학생들의 장기자랑은 마을을 작은 축제의 장소로 만들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립학교 금정中 삼귀의 · 오계 수계

제45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종립학교 금정중학교 학생들이 부처님의 계를 지키고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금정중학교(교장 권장석)는 10월 2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제45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학생 1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이석언 교법사를 비롯한 교직원이 참석했다.

범어사 율감 효천 스님은 삼귀의와 오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계는 성불의 근본이 되며 어두운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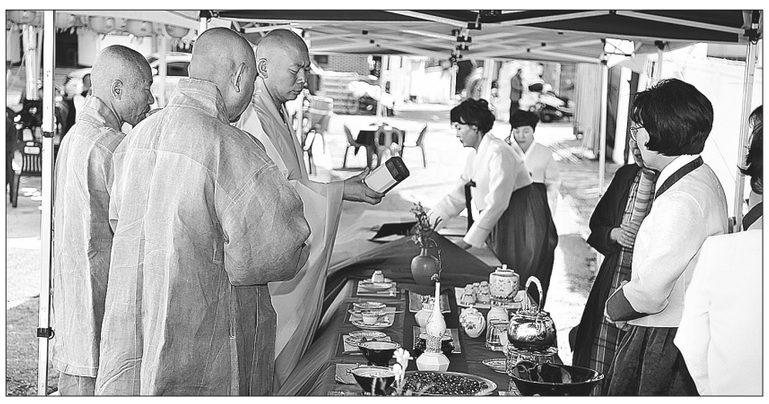
금정중학교는 1906년 범어사가 설립했으며, 1975년 10월 광덕 스님을 계사로 제1회 수계식을 거행했다. 당시 학생 235명과 교직원 9명이 오계를 수지했으며 이후 매년 10월과 11월에 수계식을 봉행하고 있다. 현재 금정중학교는 재학생 가운데 1학년은 85%, 2학년은 87%, 3학년은 91% 학생이 계를 받았으며 교직원은 전체가 수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상도 사찰음식, 널리 알려지길"

울산 해남사, 전통음식 한마당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주최 · 주관


해남사는 '제8회 울산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을 10월 21일 해남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울산 해남사에서 사찰음식을 주제로 불교문화를 한층 더 아름답게 엮어 보여주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해남사(주지 혜원)는 '제8회 울산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을 10월 21일 해남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주최 · 주관했으며, 울산시 후원을 받아 '경상도 지역 산사 승원의 음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대중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뿐 아니라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전통산사 음식과 약선 요리가 전시됐으며, 개막식 직후 내빈들은 음식을 직접 맛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는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해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스님 및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불자들은 화려한 음식 전시를 비롯해 체험 행사로 진행된 전통차 시음, 떡만들기, 화전 등 다채로운 음식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했으며 호기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016년 KBS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해 산사 승원 음식을 알리고 '대한민국 불교예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명천 스님이 나서 특강을 진행해 박수를 받았다.

명천 스님은 강연에서 "사소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귀중함을 되새기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사소한 음식이라도 그 음식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귀중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며 "또한 같은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정성과 마음으로 요리했느냐에 따라 그 맛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은 "이번 행사에서는 음식뿐 아니라 담는 용기인 그릇도 중요하게 조명하려 노력했다"며 "특히 경상도 지역 옻칠 문화에 대해 알리려 노력했다. 그릇과 음식의 조화를 살펴보며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사는 개산 108주년을 맞아 보광당에서 원불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군산 상주사, 군산사랑 시민가요제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는 10월 17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주 참좋은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회 상주사 군산사랑 시민가요제'를 개최했다.

상주사 퓨전난타팀의 난타공연으로 막을 연 가요제는 군산불교연합합창단인 그린비 합창단의 공연, 희망풍선 날리기, 축사, 국악공연, 시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은 "군산시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